
제1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

2014. 3. 12

1. 개요

목적

- 창조경제를 위한 대학 창업 정책 및 창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토론·공유

일시: 2014년 3월 12일(수) 10시 30분~12시

장소: KISTEP 8층 국제회의실

포럼 주제

- 교육-연구-창업의 3위 1체: 대학의 혁신 패러다임

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비 고
10:30~10:35 (05')	• 개회사	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35~10:40 (05')	• 발표자 및 패널 소개	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40~11:20 (40')	• 주제 발표	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
11:20~11:40 (20')	• 지정 토론	좌장 이기종 본부장 패널 김성환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 이종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1:40~12:00 (20')	• 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• 폐회	이기종 본부장

2. 개회사 주요 내용(박영아 원장)

-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인 KISTEP 수요 포럼을 신설, 매월 2회 개최
 - KISTEP 수요포럼의 첫 시간으로 '대학의 혁신 패러다임'을 주제로 대학창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
- 벤처 생태계와 청년 창업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정책 방향성
 -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 발표를 통해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벤처 생태계와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
-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
 - 상아탑적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가 대학으로 변화하여 도전정신을 갖춘 창업가 양성기지로서의 역할 필요
 -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청년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필요

3. 주제발표 주요 내용(이광형 교수)

- 발표 주제 : 교육-연구-창업의 3위 1체: 대학의 혁신 패러다임
- 평범한 대학 연구실에서 책상벤처의 출현까지
 - 90년대 중반까지 산업체 연구를 많이 하던 평범한 연구실
 -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여 접하게 되면서 벤처 창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
 - 이후 학술 연구를 위한 세미나 외에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세미

나를 연구실 내에서 운영하며 학생들의 벤처 창업을 준비

- 이렇게 연구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'책상 벤처'는 현재 총 연 매출액이 2조5,000억 원에 달하며 약 7,000명의 일자리를 창출

□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

- 우리나라 경제의 현 주소
 -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저하되고 있고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
 - 한국과 미국의 50대 기업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젊은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젊은 기업이 적음
 -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
- 스탠포드대학의 창업 매출 효과
 - 스탠포드대학의 교수, 학생, 졸업생들이 설립한 회사들의 연 매출액이 2조700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국내총생산(GDP)과 맞먹고, 우리나라 GDP 1조2000억 달러의 두 배 이상
- 교육-연구-창업의 3위 1체로의 변화
 - 지금까지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로 한정되어 왔지만 여기에 창업을 더하여 교육-연구-창업의 3위 1체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

□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한 7대 제언

- ①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교육
 - 기술개발에서 시제품 생산, 판매, 영업, 코스닥 상장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다루기보다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초기 기술이나 특허 판매, M&A를 통한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'가벼운 창업교육' 장려

- 창업과 관련한 부전공 과정 개설
 - 병역특례(전문연구요원) 기간 중 창업 허용 필요
- ② 대학 및 교수 평가제도 개선
- 대학의 SCI 논문 수에 대한 평가는 교수의 적극적 창업 지원 저해
 - 지나치게 경직된 감사는 연구현장의 무사안일만을 초래하여 진취적인 도전 의식 저해(지나친 규제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 성장 방해한 적기조례와 같은 폐단 가능성)
- ③ 지식재산(IP) 발굴 및 보호 강화
- I&D(Idea & Development)의 시대
 - 우리나라는 특허 무효율이 70%에 이를 정도로 특허권의 보호가 취약하여 중소기업의 권리가 대기업에 침해당할 소지가 높음
- ④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활성화
- 기술평가 활성화를 통한 M&A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, 이는 가벼운 창업의 성공을 위한 기반
- ⑤ 성실실패 인정과 연대 보증 개선
- ⑥ 자금조달/창업투자회사의 전문화
-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연구개발에 성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술료로 중소기업은 10%, 중견기업은 30%, 대기업은 40%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회계가 왜곡되므로 개선이 필요
 - 창업투자회사의 동업자 정신과 전문성 강화 필요
- ⑦ 스톡옵션제도 개선
- 스톡옵션을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보상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개인에게서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4. 패널토론 및 Floor토론 주요 내용

□ 정책 및 제도 관련 의견

- M&A를 통해 대기업에 매각하는 미국식 벤처기업 활성화 필요
-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 촉진 필요
 - 혁신과 기술을 갖춘 기회형 창업의 촉진이 필요하며, 이에 있어서 대학 실험실 창업의 역할이 중요
-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
- 많은 청년 CEO가 학교 교육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
- 대학 내에서 창업자에 대한 지위 보호가 제도화되고 강화되어야 함
-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지원 기능 강화 필요
-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제특허를 받아야 하는데, 비용이 높아 이에 대한 지원 필요

□ 대학의 논문성과 위주 평가에 대한 의견

- '기술이전이 대학의 고유기능이 아니다'라는 인식과 SCI 논문 수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평가제도 때문에 대학에서 기술이전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
- 대학이 먼저 변화해야 하는데, 현실적으로 대학은 논문실적이 우선이다 보니 교수가 학생들의 창업 지원할 여력이 없음
- 학교에서도 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활동을 학점 취득과 연계하고 논문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

□ 금융 관련 의견

- 우리나라는 융자 금융시스템 중심의 창업이 되는데 반하여 미국은

실패해도 프로젝트 실패로만 끝나는 투자 베이스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창업이 가능

- 기술만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취약
 - 정부 주도의 창업 관련 펀드의 경우에도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를 꺼리는 경향
- R&D예산 가운데 일부는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필요

□ 기타 의견

- 교수가 발명특허로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보상 미흡
 - 대학 기술지주회사에서 비용처리 후 학교 측에 50%를 내고나면 교수에 대한 보상은 미미함
- 우리의 대학들이 세계 3위권 대학인 스탠포드와 같이 연구와 창업 지원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대학별로 특성화할 필요
- 청년들의 창업이 감소하는 것은 10~20년 후 우리 경제의 중추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원책이 시급
- 산학연 협력이 잘 되는 학교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